

6·4 지방선거 확대경

중진 의원들 왜 광역단체장에 몰리나

행정권력 막강·잠재적 대권후보 도약 발판

공무원 인사권·예산 집행 등 지방권력 장악
정치적 영향력 보장되고 '킹 메이커' 역할도

12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현역 중진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중진 의원들이 무려 200여 개에 달한다는 특권을 내딛고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3선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재선의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에, 전남에서는 4선의 민주당 이나연 의원과 3선의 주승용, 재선의 김영록 의원 등이 일찌감치 전남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3선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까지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가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국회의원 선수를 모두 합치면 17선이나 된다.

광주·전남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화려한 경력을 지닌 여야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마표를 던졌거나 출마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 선출직 행정수장 후보로 나선 데는 국회의원인 갖지 못하는 광역단체장의 막강한 행정권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비롯한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상 지방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임기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에 버금

가는 정치적 영향력도 보장된다. 더 큰 이유는 광역단체장 자리가 대권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적어도 지역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 필요한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고, 행정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점도 광역단체장의 매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 출신 인사들의 대권 도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경기도지사 출신인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도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에서 곧바로 한나라당 대권 후보가 된 뒤 대통령에 당선되는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또한, 현재 차기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홍준표 경남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이완구 전 전남지사,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모두 광역단체장이라는 정치 자산의 후광 효과를 받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중진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선호 현상에 대해 A후보는 "광역단체장은 아무래도 집행기관이니가 일을 성취하는 보람이 국회의원 보다 낫고, 중진 현역 의원들의 경우 지방과 중앙정치 경력을 다 해본 만큼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정당,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역기반을 발판으로 더 크게 나가려는 정치적 도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상

이용섭 "민주 혁신안, 실천이 중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주기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혁신안은 그동안 당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라며 "다만 지방선거 목전에 발표돼 국민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유일한 길은 창당 수준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혁신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선제적인 '공천혁명'을 통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채, 여수시장 출마 공식 선언

안철수 신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채 전 여수경영인협회장이 최근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여수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넘게 지역에서 경영·생활정치에 매진해 온 경험을 동력으로 진정한 새정치를 실현, '풍요로운 여수, 행복한 시민' 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떠나가는 여수에서 돌아



오는 여수 ▲원도심의 전국명소화 ▲인구 40만 풍요로운 자족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녹색산단 ▲시민이 시정 참여하는 시민행복 공동체 ▲남해안 최고 교역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단체사진 찍는 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단체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뒤 제헌 국회의원 193인이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현재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직원 임명 합헌"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주체 또한 지자체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새누리,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 영입 심혈

이정복목사 전남지사 출마회견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장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는 중

권유했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상당수 있어 조만간 지방선거 대책위원회와 후보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경선 불과 후보선정위원회 등 지침이 중앙당에서 조만간 내려오면 후보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광역단체장 및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선거에 가능한 모든 후보를 내기 위해 인제 영입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복 목사는 지난달 29일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전남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목사는 회견에서 "지리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전남을 중국·일본 등의 투자유치와 인구증가 대책으로 300만 도민 시대를 만들어 열약한 10%대의 재정자립도를 3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원인 이 목사의 전남지사 출마회견은 전남도당이나 중앙당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예정열기자 yjy@kwangju.co.kr

봄·가을 '관광주간' 신설... 초·중·고 방학 유도

정부, 관광진흥책 발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초·중·고교도 재방 휴업으로 단기 방학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가 외국인 관광 유치에 주력했다면 이번 회의는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관광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흥책에 따르면 관광주간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로 정해졌으며,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과 함께 초·중·고교 단기 방학을 유도하는 등 봄·가을 국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연합뉴스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경매"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 (주)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 (주) 대신경매 김 봉수 드림
- (주) 우리옥션 이 재우 드림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